

남해안 아름다운 노을 속에서 달려봅시다

오는 8월 30일 초전공원서 제3회 사천노을마라톤 대회

사천시는 사천만의 환상적인 노을을 만끽할 수 있는 해안도로변을 중심으로 제3회 사천노을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대회에서의 많은 호응을 계기로 오는 8월 30일(토) 오후 6시에 사천초전공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풀, 하프, 10km 및 5km 코스로 펼쳐지며, 참가자에게는 지역특산물(멸치, 멸치액젓 등)을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마라톤대회와 맥주 축제를 병행하여 참가자에게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풀코스는 대회 장소인 초전공원에서 출발하여 사천만 해안도로를 따라 사천대교를 왕복하여 남양동 미룡해안도로에서 반환하며, 하프는 초전공원에서 출발해 해안도로 → 선진리성 → 용현 신촌에서, 10km는 KAI앞 해안도로를 따라 용당교에서, 5km는 미래조선해양 앞에서 반환한다.

시장은 남, 여 각 1위에서 5위(단, 5km는 1~3위)까지, 동호회별 단체전은 1위부터 10위까지 입상자에게도 시상할 수 있다.

이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대회 당일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2회 사천노을마라톤대회는 전국에서 5000여명의 마라토너들이 참가해 노을진 사천만의 바다를 바라보며 실안도로를 달렸다.

김수영 시장 '매니페스토 우수단체장' 선정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공약성과' 분야 인정

김수영 사천시장이 지난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2일 동안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서울신문사가 주관한 '제2회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단체장으로 선정됐다.

부산대학교 10·16민주항쟁 기념관에서 부산광역시와 SBS, 부산은행이 후원하고 노진환 서울신문사 사장, 강지원 실천본부 상임대표, 김인세 부산대 총장, 정낙형 부산시 정부부시장 등 기초단체장과 시민, 교수 등 300여명이 참여한 이날 경진대회는 전국 230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1차로 선정된 36개 지자체의 매니페스토 실천사례를 놓고 4개 분야(평가활동분야, 제도 및 조직개선분야, 공약성과분야, 매니페

스토 활성화 분야)에서 평가했다. 그 결과 김수영 사천시장이 공약성과 분야에서 우수 단체장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항공우주클러스터 조성 및 항공우주기술센터 건립, 항공우주관련 업체 투자유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국내의 기업유치, 조선업체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공약성과 이행분야에서 80개의 공단기업유치와 6800여명의 고용창출, 인구증가, 재정확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매니페스토 실천 우수 단체장으로 선정됐다.

한편 민선4기 김수영 시장은 100건의 공약사업을 시민과 약속해 현재 16건을 완료하고, 71건은 추진



김수영 사천시장

중에 있으며, 13건은 계획단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국 60년 기념 경축음악회

인기가수 이승기 축하공연, 기념품 제공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아 사천시는 경축분위 확산 및 기념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8·15경축행사가 범국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오는 8월14

일(목) 오후8시 삼천포대교 공원에서 전국 60년 기념 경축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축음악회는 전국 60년을 기념하고자 8월 14일 전야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경축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아울러 경남도의 대표 행사로 사천시가 지정되어 전국에 생방송됨으로써 시를 널리 홍보하는데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축 음악회 행사내용
- 일시 : 2008. 8. 14(목) 20:00-22:00
 - 장소 : 삼천포 대교공원
 - 초청가수 : 이승기, 조항조, 함중아, 원크 외
 - 행사내용

- 중앙타악단 천지율림 공연
- 기념축포
- 축하공연(인기 연예인)
- 부대행사
- 참가자 T 셔츠 배부(선착순) : 3,000벌
- 콩국, 차, 음료 제공

사천시 예산 4천억원 시대 진입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천시는 지난 7월17일 4154억원 규모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바야흐로 예산 4000억원 시대의 막을 열었다.

지난 1995년 통합시 출범 당시 1207억원, 2001년 김수영 시장 취임 첫해에는 1633억원에 불과하였던 예산이 2006년도에는 3045억원으로 비약적인 재정규모의 증가를 보였다가 드디어 이번 추정예산에서 4154억원의 재정규모를 달성하게 되었다.

이는 열약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김수영 시장을 비롯한 산하 전 공무원의 노력과 부시장을 중심으로 의존재원 확보 T/F팀을 구성하여 매년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 중앙 정부와 경남도를 발로 댄 결과이다.

4천억원의 예산은 시민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사회 구현과 선진 일류도시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된 204억원의 예산은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지방예산 절감 정책에 따른 잉여 재원으로서 지역경제 살리기와 고용창출,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 분야에 중점투자 할 계획으로 있으며, 주요 사업별로는 ▷문화관광 분야 23억원, ▷상하수도 시설개선 40억원,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정비 94억원, ▷기타 22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사천아카데미 제30강 '재밋고 행복한 인생'

8월 14일 오후 2시

사천시청 대강당



윤선

■ 주요경력

- 기전대학교 유아교육학과 학사
- 방송경력 : KBS 아침마당, KBS 언제나 청춘, KBS 아름다운 사람들, SBS 김미화의 U, EBS 기분좋은 월요일, MBC 라디오 여성시대, 라디오 사랑방 등 다수 출연
- 2008년 현재 : 행복 Sensation 대표
- 가요TV "윤선의 해피송 진행(MC)" 출연중
- 기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강중

사천시는 오는 8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민원동 2층)에서 '재밋고 행복한 인생 만들기'라는 주제로 무료 평생교육 교양강좌를 실시한다.

이번 강좌는 여러 방송매체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에서 강사로써 인기 몰이 중인 행복강사 '행복 센세이션 윤선 대표'를 초청해 재밋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한 특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사는 우리의 삶은 즐겁게 웃고, 즐겁게 활동하기에도 시간이 매우 부족하며 그 화살같이 빠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고통받으면서, 절망하면서 보낸다면 얼마나 아까운 시간 낭비인지를 알려주고자 한다.

또한 행복은 행복하려고 노력

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웃는 자가 승리한다', '건강하게 여전히 살아남는 자가 행복하다', '즐거움 마음과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이 세상이 재미있다' 등의 소주제를 통하여 재밋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웃는 날은 얼마나 되는지, 하루에 열 번을 웃는다 해도 시간으로 따지면 5분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강좌를 통해 2시간동안 웃으며, 근육의 움직임을 통한 운동효과를 통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 볼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14일 오후 2시 시청대강당에서 행복한 여자 윤선 강사가 2시간동안 행복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나 많은 시민이 참석해 행복한 마음을 가져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3회 사천노을마라톤대회

2008. 8. 30(토) 18:00

사천 제1일반산업단지내 초전공원

풀 / 하프 / 10km / 5km

인터넷 <http://www.sunset.or.kr>
 전화 (055) 854-5171, 5172
 팩스 (055) 854-5170

|주최| 사천시
|주관| 사천시육상경기연맹
|후원| 사천시체육회, 사천시 생활체육협의회, 사천경찰서, 사천소방서, 사천시관내마라톤클럽

농촌전통테마마을 현장체험학습

잊혀져 가는 조상의 전통생활방식으로 체험학습 기회제공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치영)는 사남면 우천리 우천마을에 삼베길쌈을 주테마로 하는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을 2007년부터 올해까지 2년차 사업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고 있다.

농촌전통 테마마을사업은 농촌의 고유한 전통지식과 기술, 문화 자원의 상품화와 농촌 체험학습, 농가소득 및 농산물 직거래 등을 통한 농촌생활의 활성화 및 도농문화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우천마을 삼베길쌈 테마 체험학습은 삼을 베어내는 시기를 맞추어 지난 7월 7일 사남면 관내 초등학교생과 유치원원아 150명을 대상으로 현장학습활동이 이루어졌다.

옛날 우리 조상이 바쁜 농번기를 보낸 후 삼을 베어 팔려서 농한기에는 부녀자들이 집집마다 삼베길쌈을 하여 여름옷을 지어 입었던 우리 조상들의 생활 풍습을 자라나는 어린세대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삼을 베어내는 과정, 아궁이에 불을 피워 삼술에 짜는 과정, 삼검질 빚기 과정에 학생들과 원아들이 참여했다.

가마솥에 감자를 찌서 먹어보는 농촌체험도 어우러져 즐겁고 보람



사남면 우천마을 삼베길쌈 테마 체험학습에 관내 초등학교생들이 참여해 다양한 농촌 체험학습 활동을 배우는 기회가 됐다.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참석한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8월중 개관 예정인 삼베 체험관은 옷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사진을 전시하고 삼베와 관련된 도구와 물품을 전시하여 학

생들에게 전통생활방식과 전통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현장체험과 학습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여름방학을 이용해 생활에적응교육과 서당체험 등 다양한 체험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후반기에는 고추장 된장 만들기

체험, 농사체험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현장학습과 도시민이 찾아와 농촌의 푸근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서 또한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기 위한 농촌전통테마마을로 태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사천시보가 전하는 전국향우 동정

특별한 애국심으로 독도 지키는 박영춘 향우

지난 7월14일 일본정부는 일본 중학교 사회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날 부터 우리 한국의 조야(朝野)는 '누가 뭐래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일본대사관과 영사관 앞에 몰려가 목에 아프도록 고함을 지르며 계란을 던지고 일장기를 불사르거나 하면 인터넷에서는 많은 네티즌들이 일본정부 사이트에 몰려가 다운시킨다며 언론에서 보면 난리이다.

일본은 고압계도 가끔 이런 짓을 해서 사본오열된 우리나라의 국권을 기꺼이 한데 모아주고 애국심을 키워준다.

여기 특별한 애국심에 불타 '독도 지키기'에 일찍부터 앞장서온 우리 고향사람이 있다. 그는 독도의병대 부산지부장 박영춘 향우(61세)이다.

지난 6월7일 부산 구덕고등학교 강당 승학관에서는 전교생 700여명이 모여 한국 해병대 복장을 한 초로(初老)의 연사에게 열열이 환한 박수를 보냈다.

이날의 연사는 박영춘 향우로 '독도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우리보다 경제적 군사적 그리고 이웃 나라를 빼앗으려는 침략성 모든 면에서 우세한 일본의 야욕 앞에 내가 해병대 입대한 50여 년 전에 비교하여 독도 방어에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 내 생각은 국방의 선봉장이면서 도서방어가 주 임무인 해병대를 더 늦기 전에 독도에 주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독도가 확고부동한 우리의 영토임



을 세계만방에 보여 주기 위해선 철옹성같이 요새화함으로써 우리 땅 독도를 자손만대 영세 불변토록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여 강연한 것이다.

그는 2004년부터 독도관련활동을 해왔지만 근자에 한 활동을 보면 지난해 8월15일 광복62주년 맞아 독림기년관 김삼은 관장으로부터 '나라사랑 독도사랑의 정신이 많은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었다'는 공로로 표창장을 받았고 광복회 노일학 부산지부장의 감사장도 받았다.

또한, 8월26일 대한민국 독도 사랑회 주최 웅변대회에 특별출연했고 9월10일 부산시 수영구 소재 '민족과 여성역사관' 개관 3주년 기념식에서 '독도 이대로 둘 것인가?'를 웅변했으며, 10월13일 부산시 남구 제11회 오륙도축제 웅변대회에 초청 출연해 '독도사랑'을 웅변했다.

그리고 2007년 12월 13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팔각회, 2007년 전국회원연차대회 및 제31회 팔각회 시상식에 초대되어 독도의병대 홍보책자

를 배포하고 독도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이명박 대통령(당시 후보) 및 참석국회의원들로부터 애국심을 격려 받았다.

금년 들어 지난 3월29일 89주년 3.1기년 제10회 구포장터 3.1만세운동 재현행사시 구포역에서 '독도 이대로 둘 것인가?'를 연제로 웅변하였고 KBS-TV에서도 독도지킴이 홍보활동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앞으로 학교 독도사랑 강연이 국제외국어고 등 4곳이 예정되어있다.

그 동안 독도전경의 사진액자를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 부산수영구청장 해운대구청장 동래구청장 남구청장 그리고 고향사천시청 등 각계 지명인사들에게 증정해 '독도지킴이'를 통한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

박지부장은 사천시 외풍동에서 출생하여 웅산초등학교(13회)를 졸업하고 17세 때 해병대에 자원입대했고 제대 후 부산경성전자고를 입학 졸업했으며 회 및 제31회 팔각회 시상식에 초대되어 독도의병대 홍보책자

고유가대책 어업인 간담회 가져

사천시는 최근 날로 치솟고 있는 국제원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어업용 면세유류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어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 사천시청

회의실에서 관내 수산관련 기관단체장 및 수산관련 각계각층의 어업인 대표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유가대책 어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유가자료 어업재산상 악화와 출어포기 등으

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선 어업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안안에 대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다각도로 심도 있게 대책을 논의했다.

논의된 대책은 유류에 붙는 각종세제감면 및 국·도비 보조지원을 통하여 어업용 면세유가를 손익분기 적정선에서 어선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과 잉여자금 대출이자 상환액 감면을 통한 어가부채 경감을 도모하는 방안, 그리고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확대로 적정 어선척수를 유지하는 방안, 업종별, 어선별 운변제 출어방안, 선원공제보험 및 어선종사자 국민연금부담제도 개선방안 등이다.

한편 시는 어업재산상 악화와 출어포기 등의 주원인이 유가인상에 있어 시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한내용에 대해 간담회 시 논의된 제반사항을 경남도를 통하여 중앙에 건의할 것 이라고 밝혔다.

자연재해대비 광고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 관리

우수기 자연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 시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가 없도록 효율적인 광고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가 되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합니다.

- 태풍 및 강풍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광고물 및 건축자재 관리(결박) 상태 점검

- 건축물 등에 부착된 각종 광고물의 견고성(안전)여부 수시 확인

- 공사장내 배수구 정비 및 각종자재 결박(정리정돈) 확인

- 공사장내 타워크레인의 토지정착상태 및 안정성 여부 확인

- 공사장 비상연락망 구축여부 등

※ 기타 문의사항 : 건축과 건축행정담당(☎831-3211)

전국사진공모전 입상작품 1차 공급결과

애향운동(사천삼천포에 가보자)운동본부(회장 천봉근)는 지난 6월부터 우리 고향 사천시의 4계절 전국사진공모전 입상작품을 각 계에 공급해주시고 아름다운 우리지역을 알리고 자랑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7월 현재 200매의 사진작품이 공급되었는데, 제공된 것은 연 2~3만명의 연수자들이 거쳐 가는 부산소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대형상선의 선장 기관장 교육, 일반수산업 선기관장 및 항해

사 기관사 선원 국가교육기관)의 로비와 기숙사 복도 등 연수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걸기로 하고 10점을 기증형식으로 제공했다. 그리고 43가보자운동본부 후원이사, 경희원들에게 무상 제공하여 그들의 업소뿐만 아니라 지인이나 거래처에 제공하여 게시하도록 협조분과 함께 사진작품을 보냈다.

부산의 유진길(김해의원 원장), 김윤곤(김윤근세무사무소 대표) 등 애향인사들은 43운동

본부에 후원금을 제공하면서까지 사진작품을 추가로 공급받아 타지 출신인사들에게 제공해 고향사랑에 힘쓰고 있다.

또한 남해와 삼천포해안에서 풀뚜기와 불락어 생산 재료를 공급받는 곳으로 예약이 없으면 자리에서 식사를 할 수 없다는 유명식당으로 성장한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송하식당에서도 후원금을 내고 우리고향의 아름다운 사진작품 [금상 실안노을], [장선,삼천포대교] 을 2층 객장에 걸었다.

사진작품 공급은 8월 중순부터 서울 경기지역에 계속된다.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지원 홍보

- 목적** : 농업생산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활동 도모
- 지원대상**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시관 내에서 농업생산활동 중 야생동물(포유류, 독사류, 벌류)에 의하여 직접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지원제외**
 - 산림작물 등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 농업생산활동과 무관한 수렵 또는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
- 피해신고** :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발생사실 현장사진, 진단서 등 피해근거 서류를 구비하여 5일 이내 신고
- 지원내용** : 진료비 및 위로금
 - 진료비 : 실제 피해를 입은자가 의료기관에 부담한 금액 중 5만원 미 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
 - 위로금 : 사망시 노동력 등을 감안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 신고기관**
 - 시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정담당
 - 읍면동 : 산업경제담당
- 신청 및 지원절차**

피해신고 ⇒ 피해사실조사 ⇒ 사천시 야생동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지원금 확정 ⇒ 지원금 지급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정담당 ☎831-3760

2008년도 하반기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

- **융자 지원금액** : 1.615백만원
- **대상자** :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
- **융자한도**
 - 농어업인 : 운영자금 3천만원, 시설자금 5천만원
 - 법인 및 생산자단체 : 운영자금 5천만원, 시설자금 3억원
- **신청가능한 사업**
 -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
 - 광열·동력비, 소농기구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
- **융자조건**
 - 운영자금 :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연 2%
- **신청서 접수** : 7. 21 ~ 8. 8
- **접수처**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 산업경제담당
 - 사천시 농축산과 농정담당
- **신청서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융자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타 증빙자료
- **향후 추진일정**
 - 융자지원 대상자 추천(8. 11일 한) : 읍면동
 - 융자 대출 실행(9. 1 ~ 12. 31) : 농협 시지부

폭염에 의한 장애 및 응급처치요령

- 1. 열사병**
 - 더운 곳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였거나 장시간 햇볕을 쬐면 일어나는 것
 - 토할 것 같은 느낌과 어지러움, 두통, 경련, 일시적으로 쓰러질 수 있음
- ◆ 응급처치**
 - 시원한 장소로 옮김
 - 편안한 자세로 보여주고 옷을 벗겨줌
 - 부채질을 해주거나 이온 음료 또는 물을 준다 단, 의식이 없으면 입으로 아무 것도 주지 않음
- 2. 열사병**
 - 격렬한 신체활동, 밀폐된 공간 거주, 잠겨진 차량 안
 - 신체가 조절할 수 있는 체온의 방어진전보다 더욱 많은 열을 받을 때 발생
 - 환자의 체온조절 기능이 중단
 - 생리적 방어기능이 소실되면 높은 체온에 의하여 신체조직이 파괴되고 사망
 - 이런 환자들은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며 붉은 색을 띠고 땀을 흘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임
 - 의식은 혼수상태, 통증자극에 무반응, 체온은 41도 정도
 - 초기 맥박은 빠르고 강하나 시간이 경과하며 약해지고 혈압은 저하
- ◆ 응급처치**
 - 시원한 장소로 환자를 옮김
 - 옷을 벗기고 젖은 수건이나 담요를 덮어주고 부채질을 해줌
 - 가장 중요한 것은 체온을 내려주는 것임
 - 병원에서 이송하여 신속히 치료를 받음
- 3. 열경련**
 - 더운 기후나 심한 운동 후에 주로 나타남
 - 신체의 수분과 전해질 손실
 - 손과 발, 복부에 경련, 때로는 어지러워 쓰러질 수도 있음
- ◆ 응급처치**
 - 환자를 그늘지고 시원한 장소로 옮겨서 편안한 자세를 해줌
 - 부채질을 해주거나 이온 음료 또는 물을 준다 단, 의식이 없으면 입으로 아무 것도 주지 않음
 - 경련이 있는 부위는 압력을 주어 맞사지하거나 찬 수건을 대어주는 것이 좋음
 - 만약 경련이 계속 된다면 병원으로 이송

사천시 공고 제2008-015호

사천시 야립 광고판 이미지 및 홍보문 공모

- 사천시의 관문인 사천IC 주변에 사천관광 이미지를 담은 대형 야립광고판을 설치하여 널리 홍보하여 왔으나 진주-마산간 남해안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이전 설치가 불가피하여 새로이 설치할 야립광고판에 새겨넣을 우리지역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 이미지 및 홍보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공모 자격** : 사천을 사랑하는 시민 누구나
 - 2. 공모기간** : 2008. 8. 1 ~ 8. 31.
 - 3. 이미지 및 홍보문(안) 형식** : 사천시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친근한 이미지와 역동성과 발전상을 함축하는 짧고 간결한 국문 또는 영문 문구
 - 【예시】 : 기촌 시정홍보 야립광고판
 - 앞면 : 삼천포대교 야경(이미지)
 - 뒷면 : T-50 golden eagle(이미지) 원더풀! 사천(홍보문안)
 - 4. 이미지 및 홍보문안 구성 중점**

사천에 대한 애향심이 살아나고 첨단항공우주산업과 해양수산 관광도시로서 사천관광의 이미지를 살리면서 우리시를 찾는 외래객에 사천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표현

참고사항 : 한려수도 해상 중심지, 첨단항공우주산업의 메카, 외국인투자기업 거점도시, 풍요로운 해양수산관광도시(사천8경 등)

- 5. 공모방법** : 사천시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의 사천시 야립홍보문 공모 배너 접속 응모(서식 다운로드하여 우편, Fax 제출가능)
 - 응모시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의미 반드시 기재
- 6. 기타사항**
 - 선정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사천시에 귀속됨
 - 선정작은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7. 시상내역** : 당선작 1편 200천원 / 선정작 10편 각 30만
- 8. 문의처** : 사천시 문화관광과 관광담당(☎055-831-2725)
 - ※ 제출방법
 - 우편 : (우) 664-701 경남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사천시청 문화관광과 관광담당자
 - 인터넷 : <http://www.sacheon.go.kr/> (사천시청 홈페이지)
 - FAX : 055 - 831 - 6024 (사천시청 문화관광과)

보건알림방

복지알림방

비브리오패혈증 예방홍보

해수온도의 상승으로 수인성전염병인 비브리오패혈증 발병률이 높은 시기로 철저한 개인위생 준수로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음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성 간질환이 있는 사람은 해산물 날 것 섭취는 절대 삼갑시다.
-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여름철 바닷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해수욕장 상체가 낮을 경우 즉시 밖으로 나와 맑은 물에 씻도록 합시다.
- 여름철에 오염도가 높은 해산물은 날 것 섭취를 삼가하고 끓이거나 구워서 먹도록 합시다.
- 주변에 의심스러운 환자 발생 즉시 인근 병,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건소(☎ 831-3621)로 신고합니다.

수인성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요령

1. 물은 반드시 끓여서 먹습니다.
2. 달걀, 육류,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서 먹도록 합니다.
3. 날것으로 섭취하는 과일, 야채류는 흐르는 수도물에 잘 씻어 먹도록 합니다.
4. 도시락은 서늘하게 보관하고 가능한 빨리 먹도록 합니다.
5. 조리기구, 행주, 도마, 칼 등은 철저히 소독하여 사용합니다.
6. 설사나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7. 외출 후, 조리 전, 작업 후에는 손, 발을 비누로 깨끗이 씻도록 합니다.
8. 가족사육 축사, 짐수지역은 살충, 살균 소독을 철저히 합니다.
9. 파리, 모기 등이 발생되기 쉬운 물웅덩이, 고인물을 제거합니다.
10. 설사증상이 있는 경우, 환자가 발생시는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

폭염! 한방으로 물렀거라!

노인대상 한방첩약사업 운영

사천시보건소(소장 유영권)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더위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저증이 불편

한 취약계층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방첩약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방첩약사업은 한의학적으로는 상서(傷暑), 즉 여름철 폭염 때문에 더위를 먹어서 입맛과 기운이 없어지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인들의 기력을 보강하기 위해 저소득 노약자 60가구를 대상으로 월2회 이상 가정방문을 통하여 건강관리와 함께 한방첩약을 하는 것으로 소외된 노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사업명에 거주하는 취약대상자인 양모 노인은(남78세) "평소 한방진료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보건소 한방 방문팀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어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며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한편 보건소는 폭염시 주의사항으로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실 것과 외출할 경우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챙이 넓은 모자와 물병을 꼭 챙겨 외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분무용 살충소독 실시

사천시보건소는 그동안 주민홍보를 위해 관행적으로 실시해 오던 연막용 살충소독을 환경호르몬, 환경오염 문제와 더불어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고비용등의 단점이 있어 올 여름부터는 소독효과가 더 뛰어난 분무용 살충소독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연막용 살충소독은 분무용 살충소독에 비해 해충구제 효율이 떨어지고, 소독약제와 경유를 혼합·가열시킨 후 연기를 뿜어내기 때문에 맑은 공기를 향유하려는 일부시민 및 환경단체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

생했다. 따라서 시보건소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연막용 살충소독을 줄이고 대신 분무용 살충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모기유충 서식지에 대한 유충구제에 중점을 두어 점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는 분무용 살충소독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으며 위생해충 등으로 인한 불편한 사항은 시보건소 방역담당(☎831-362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방역소독의 장단점 비교

종류	연막용 살충소독	분무용 살충소독
장점	· 단시간내 광범위 지역 소독 가능 · 가시적인 작업으로 시민선호	· 물에 희석하여 사용함으로 비염이 적게 됨 · 잔류효과로 방역효과 큼 · 비가열성으로 살충효과가 큼 · 대기오염과 교통장애 해소 · 작업시간 제한 없음
단점	· 경유와 살충제의 혼합연소로 대기 오염이 발생하고 높은 열에 의한 살충제의 파괴로 방역효과가 미비함 · 잔류효과가 없음 · 차량통행에 지장을 줌 · 작업시간 제한 · 소음발생 · 유류비 등 비용이 많이 듦	· 단시간내 광범위지역 소독 불가능 · 가시적 효과가 적음

자궁경부암 무료 검진 실시

- 검진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 검진대상
 - 30세~65세 이하 여성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인 자
- 검진종목 : 자궁경부 촬영,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 검사방법 : 장비를 이용한 이동 순회검진
- 검사일정
 - 9. 1(월) ~ 9. 2(화) 사천읍보건지소 / 9. 3(수) ~ 9. 4(목) 사천시보건소 / 9. 5(금) 서포면 복지회관
- 문의 : 사천시보건소 ☎ 831-3565

정관·난관 무료 복원 시술

- ◇ 대상 : 사천시민 중 영구불임 시술자(정관·난관)
 - * 남 50세이하, 여 44세이하
 - ◇ 시술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가족보건센터
- ◇ 지원내용 : 검사, 수술, 입원비
- ◇ 접수기관 : 사천시 보건소(831-3554)

‘동병하치(冬炳夏治)’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

겨울병을 여름에 미리 다스린다

사천시 드림스타트센터(구 시청 삼천포청사)는 지난 7월21일, 22일 양일간 미취학아동 137명을 대상으로 건강부문 맞춤형 전문서비스의 하나인 ‘동병하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동병하치 프로그램은 지난해 드림스타트사업을 주관하던 보건복지부와 전국 40여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합소아 한의원’이 호흡기질환예방 및 치료를 3년간 후원하는 협약을 맺어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8년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천시에서 1세부터 7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됐다. 동병하치(冬炳夏治)란 겨울

에 발생하는 질병을 여름철에 예방하는 것으로, 1년 중 양기가 가장 높은 처서에서 소서까지 기간동안 호흡기를 다스리면 질병 예방 효과가 크다는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것으로 감기, 비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특히 도움이 된다. 초복을 맞아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은 폐와 관련된 열자리에 폐 강화 약재가 함유된 패치(삼복패치)를 붙여주어 약물이 경락으로 쉽게 스며들게 하여 정기를 북돋우며, 신체의 면역력을 강화해 겨울병을 예방할 수 있게 한다.

어린이는 2~3시간, 성인은 4~6시간 삼복패치를 첨부하며 10여일 간격으로 중복, 말복 즈음

에 두 번 더 실시한다. 삼복패치에 함유된 각종 건강기능성품인 ‘기린아’도 함께 제공해 호흡기 질환 예방은 물론 아동의 성장발육과 균형적인 영양섭취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사천시는 드림스타트사업을 지난 6월부터 저소득계층 아동의 육구에 맞추어 본격적으로 복지(문화체험활동, 개인, 가족상담), 교육(학습능력증진, 특기적성개발, 가정교육)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병하치 서비스 외에 A형간염 무료 접종사업 등 건강분야의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 관계자는 앞으로 복지, 건강, 보육 세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에 부는 미담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교양, 취미과정 프로그램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07년 하반기 수료를 끝낸 ‘제과제빵 취미 과정반’ 수료생들 중 자원봉사에 깊은 관심을 가진 이들로 구성된 ‘달바위’ 회원들이 지난 6월 평소 갖고 있던 실력으로 바자회 행사를 개최해 수익금 전액으로 위문품을 구입(라면 36박스, 환가액 86만원)하여 저소득층을 위해 써 달라고 기탁해 주위에 칭송이 자자하다. 이들은 평소 소중한 기술을 습득케 해 준 사천시에 대한 고마움을 표사와 함께 ‘떡거리’를 통한 자원봉사 활동을 실현하고자 본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바자회를 찾은 시민들의 반응이 의외로 좋아, 지속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기

로 결의하는 등 지역사회의 또 다른 소중한 자원봉사자로 거듭나고 있다.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꼭 받으세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란? 생애 주기 중 중년기와 노년기에 해당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기본검사 뿐만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등에 대한 건강위험평가와 흡연, 음주 등 생활습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처방까지를 포함하는 사전 예방적 건강검진을 말한다.

검진 대상자는 만40세(1968년생)와 만66세(1942년생)에 해당되는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이 된다. 만40세(중년)는 암,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발병률이 급상승하는 시기이며, 만66세(노년)는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낙상, 치매 등 노인성질환의 위험이 증가되는 시기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검진비용이 전액 무료이며 검진 날 아침을 금식한 후 생애 전환기 검진표를 지참하여 성모병원, 중앙병원, 삼천포제일병원, 삼천포서울병원, 삼성오양병원, 한마음병원, 김내과의원, 메리놀내과병원, 박내과의원, 사천제일의원, 삼천포내과의원, 정현내과의원등을 방문하여 검진 받을 수 있다. * 기타 문의 : 보건소 만성병관리담당 831-3569

2008. 7월 사천시 상수도 수질검사결과 공고

◎사천수도서비스센터에서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매일 7개항목, 매주 7개항목, 매월 55개항목, 매월 16년이상 노후관 10개항목, 매월 가정수도꼭지 4개항목, 매분기 급수과정별 11개항목)을 실시하여 깨끗 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7월 6일 공명정수장 및 광역상수도 수돗물 수질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검사항목(총56개)	수질 기준	공명정수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천정수장
1 일반세균	100cfu/100ml이하	0	0
2 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3 불소	1.5mg/ℓ 이하	불검출	불검출
4 암모니아질소	0.5mg/ℓ 이하	불검출	불검출
5 질산질소	10mg/ℓ 이하	1.1	0.9
6 잔류염소	4.0mg/ℓ 이하	1.04	0.67
7 총트리할로메탄	0.1mg/ℓ 이하	0.0329	0.0352
8 클로로포름	0.08mg/ℓ 이하	0.02284	0.02886
9 경도	300mg/ℓ 이하	29.0	28.1
10 수소이온농도	5.8-8.5	7.6	6.6
11 중발산질류	500mg/ℓ 이하	88.0	87.0
12 철	0.3mg/ℓ 이하	불검출	0.083
13 탁도	0.5 NTU이하	0.140	0.050
14 냄새(이취 없을 것), 맛(이미 없을 것)		적합	
15 할로아세틱에시드의 10개 항목		각 정수장별 불검출 및 수질기준 이하	
16 대장균과 28개 항목		각 정수장별 불검출	

2. 검사대상
◎7월중 공명 정수장 및 광역상수도에서 먹는물 수질검사기준 55개 전 항목 수질검사결과 먹는 물로 적합하며, ◎수돗물에 소독 냄새가 나는 것은 수인성전염병 예방 및 2차 오염예방을 위하여 염소를 주입하는 것이므로 다소 불쾌하시더라도 보리차 등을 넣어 끓여 드시거나, 냉장고에 넣어두고 차게 해서 드시면 보다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2008년 7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 물놀이 사고 예방 -

-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계곡, 강, 바다 등을 찾아 수영, 뱃놀이 등 물놀이 할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물놀이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물놀이 안전수칙
 -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준비운동을 합니다.
 - 수영금지 구역이나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수영하지 않습니다.
 - 안전요원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 껌, 음식 등을 먹으며 수영하면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 마주 차가운 물이나 오염된 물에서는 수영하지 않습니다.
 - 아이들이 물놀이 할 때는 항상 부모가 주위에서 지켜보아야 합니다.
- ☞ 아래 증상이 보이면 휴식을 취합니다.
 - ① 몸이 떨리고 입술이 파래질 때
 - ② 얼굴과 피부가 창백해 질 때
 - ③ 피부에 소름이 돋고 차가워 질 때
 - ④ 손발이 저리고 마비증상이 올 때
- 물에 빠졌을 경우 행동요령
 - 웃을 입은 채 빠졌을 경우, 침착하게 웃고 신발을 벗는다.
 - 큰소리로 보호자 등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다.
 -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에는 합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말고 로프, 확대, 막대기 등을 이용해 구조하여야 한다.
 - 물에 빠진 사람을 건졌을 때에는 바로 인공호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 물놀이 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11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 개선사항 안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08.06.30)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 개선
- 주요 개선내용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의 종이컵 사용 허용
 - 대규모점포, 도·소매업소의 종이봉투, 종이쇼핑백 무상제공 가능
 -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의 배달용,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와,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적판매제조·가공업자의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 허용
 - 업종별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준수사항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1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의 사용억제 및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
 - 목욕장업, 숙박업
 - 1회용 면도기, 칫솔·치약, 샴푸·린스 무상제공 금지
 -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로 된 것은 제외)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억제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업 및 공금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 억제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

PCBs(폴리염화비페닐) 함유기기 신고 안내

- 배경
 - 스텝클러협약의 국내 비준(’07.1.26)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이 시행(’08.1.27)됨에 따라, PCBs 함유기기 신고가 의무화 됨
- PCBs(폴리염화비페닐)
 - PCBs(폴리염화비페닐, polychlorinatedbiphenyl)는 다이옥신과 함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04.5.17 발효)에서 규제하는 대표적인 유해 오염물질이다.
 - PCBs는 변압기 등 절연유에 사용되던 잔류성이 높은 염색제 유기화합물로서 인체내로 들어오면 지방이나 뇌에 축적되며 중독증세는 손발 및 구강점막의 색소침착, 안검주머니 모공 확대, 전신진전, 수축마비, 성호르몬의 파괴, 간 장애, 암(cancer)등을 일으킨다. 특히 발암성 및 생식기장애 유발성이 우려되는 염색제성물질로 30~40년대 공업용으로 널리 사용됐으나, 70년대 중반부터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국제적으로 사용이 규제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전기사업법에 의해 1979년부터 변압기 등 전기장비에 PCBs 함유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을 금지해 왔다.
 - PCBs는 스텝클러협약에서 202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근절시키려는 유해물질로 환경부에서는 PCBs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PCBs로부터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스텝클러협약 목표(2025년)보다 10년 앞서 2015년까지 근절을 목표로 ‘PCBs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 신고대상 : 절연유를 절연체로 이용하는 모든 전기 기기
 - 변압기, 콘덴서, MOF, 차단기, 계기용 변압변류기 등 모든 전기 기기
 - 단, 모터 등 전동기 전단에 위치한 소형의 전력 공급용 콘덴서는 제외
- 신고기한
 - 사용중인 주상용 변압기 : 수리 또는 폐기를 위하여 떼어낸 날부터 30일 이내
 - 신규기기 : 설치후 30일 이내
- 변경신고
 - 신고사유 : 관리대상기기의 폐기, 절연유 교체
 - ※ 절연유 교체는 PCBs를 20ppm 이상 함유한 절연유만 해당되며, 절연유 교체의 사유로 변경 신고 하는 경우에도 교체 후 PCBs 농도를 분석·신고해야 함
 - 신고기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PCBs 분석결과 신고
 - 대상 : 절연유를 함유하는 유압식 변압기에 관한
 - 신고에서 PCBs 분석 결과를 기재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경우
 - 검사를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경우 → 검사계획서 첨부
 - 분석기관에 분석 의뢰 하였으나 신고 기한 내 검사결과가 도래하지 못한 경우 → 분석의뢰 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수증, 계약서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사본) 첨부
 - 신규 변압기의 경우도 모두 검사를 하여야 함
- PCBs 분석 방법
 - 관리대상기기 신고시 PCBs 간이시험법 이용
 - 절연유에 대한 간이시험법법 분석결과 5ppm이하로 검출되면 정밀분석방법 적용시 PCBs 환산농도로 20ppm이하가 되도록 신고시 20ppm이하로 기록하여 신고 가능
 - 관리대상기기 신고시 간이시험법법 분석결과 5ppm을 초과할 경우에는 “20ppm이상”으로 기록하고 신고해도 무방하다.
 - 열해 오염기기를 폐기할 경우에는 PCBs함유폐기물의 규제기준치 20ppm이므로 폐기하는 시점에서 다시 정밀분석결과에 따라 적정처리 하는 것이 가능
- PCBs 함유기기 관리 관련 법적 사항
 -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변경신고 불이행
 -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오염기기의 안전관리 불이행
 - 오염기기의 안전관리의상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 서식 등 참고사항 : 사천시 홈페이지 게시

사 천 읍 사천읍 시민안전봉사대 읍민 안전지킴이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해 사천읍 시민안전봉사대(대장 장정대) 대원들은 향교산 산책로의 제조작업과 함께 수목을 관리하여 읍민이 마음놓고 산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읍민이 모든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매월 교통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장전1리 전정인택에 전기시설 일체를 교체해 위험요소를 완전 해소하여 편안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천읍 시민안전봉사대원들은 오늘도 안전지킴이가 되어 각 마을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소외계층을 직접 방문해 여름철을 맞이해 불결한 장소 및 각종 위험요소를 제거해 안전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 동 면 정동면 새마을협의회·부녀회 소공원 가꾸기



정동면 새마을협의회(회장 김남우)와 부녀회(회장 조숙희)는 지난 7월21일(월) 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름답고 쾌적한 소공원 조성을 위한 소공원 가꾸기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정동면사무소 앞 소공원에서 잡풀제거, 흙 고르기, 꽃 심기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를 추진한 김남우 회장과 조숙희 회장은 "면사무소 앞 소공원을 찾는 면민에게 잠시나마 쉴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공원 가꾸기에 정동면 새마을 협의회와 부녀회가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정동면 기관장 협의회 이웃사랑 나누기

정동면 기관단체장 협의회는 기초생활수급자 59세대에 대해 풍수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풍수에 보험은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 등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 및 시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시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보험제이다.

정동면 기관단체장 협의회는 풍수해 보험제도의 이란 취지에 동참해 형편이 어려운 관내 수급자를 위하여 20만원을 회비로 지원하여 7월초 59세대에 대해 풍수해보험을 가입시켜 풍수해시 피해를 입은 가구가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 남 면 119희망의 집 완공식 행사 개최



지난 7월10일(목) 오전10시 유천마을에 살고 있는 윤병관(지체장애, 54세)씨의 119 희망의 집 완공식 행사를 가졌다. 김주일 도의원, 이창화 사천소방서장, 김국연 사남면장을 비롯한 지역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티플하우스 1층 1동을 건축하여 인계했다. 윤병관씨 집은 지난 2월12일(화)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한 채가 완전 전소돼 임시로 유천경로당에서 거주하다가 사천소방서와 지역민들의 도움으로 집을 완공하게 됐다.

바르게살기운동 사남면위원회 자연정화활동 전개



바르게살기운동사남면위원회(위원장 하의수)는 지난 7월19일(토) 오전 11시 여름철을 맞이하여 조천마을 해안변부터 우천숲, 능화숲, 가천호수, 진분계수 등 관내 자연발생유원지를 찾는 관광객과 관광객들을 위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대대적인 자연정화 활동을 펼쳤다. 또한 유원지를 찾는 청소년 순찰반을 편성하여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용 현 면 관광지 환경정비로 깨끗한 환경 조성



용현면 자연보호협의회(회장 박학진)는 지난 6월30일 오전10시 여름 행락철을 맞아 관내 주요 관광지인 용현면 선진리와 해안 주변에서 회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 정비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선진리성 주변 쓰레기 줍기와 잡초 제거는 물론 해안변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제거해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관광지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여름철 청결한 위생환경 조성에 일익을 담당했다.

축 동 면 축동면 복지회관 준공식 열어



축동면 복지회관(축동면장 송근호) 준공식이 지난 7월2일 김수영 시장을 비롯한 김주일 도의원, 김석관 시의원,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늘어선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준공된 축동면 복지회관은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여 대지면적 2700㎡, 연면적 440㎡규모의 2층 건물로 지난해 6월 착공에 들어가 지난달 6월에 완공됐다.

1층에는 관리실, 정보문헌실, 취미활동실, 휴게실이 있으며, 2층에는 건강체험실, 체력 단련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등으로 시민들의 활용이 편리하도록 설계됐다. 숙박사업으로 건립된 복지회관은 면민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화합의 장소와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바르게살기 축동면위원회 국토대청결운동 시행



바르게살기축동면위원회(회장 김평웅)는 지난 7월16일 축동면 복지회관에서 사다마를 안길까지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했다. 바르게살기 축동면위원회 회원(39명)은 하천 퇴적물, 쓰레기, 산림부산물 등으로 인한 하천범람 및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전 회원이 적극 참여하여 쓰레기 400ℓ를 수거했다.

곤 양 면 곤양향교 하계인성교육, 청소년 가치관 확립



곤양향교(전교 정도용, 지부장 최낙일)는 곤양면, 서포면, 곤명지역내 초등학교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하계 인성교육을 지난 7월 11일부터 19일까지 향교 내 예절강단에서 실시했다.

매년 여름방학 전에 열리는 인성교육은 지역 유림 8명으로 구성된 강사에 의해 전통문화, 사자소학 등을 비롯해 다양한 예절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또한 차량이 없는 학교에는 차량을 지원하는 등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을 심어주기 위해 실시한 인성교육은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기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곤양초, 졸업생으로부터 도서 1000권 기증



곤양초등학교(교장 정창교) 54회 졸업생 최상기씨는 7월 7일 교묘를 방문하여 학교관계자 및 어린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기증식을 갖고 역사, 과학, 인성도서 등 1000권의 도서를 기증하였다.

최상기씨는 기증 소감으로 "후배들이 어린 시절 독서를 통해 지식과 경서를 함양하여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창교 교장은 감사의 인사말에서 "선배들의 모교사랑, 후배사랑의 마음을 잘 새겨 어린 학생들이 꿈을 향해 나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펼치겠다."고 하였다.

곤 명 면 농촌사랑 1단 1촌 자매결연



지난 6월 26일 곤명면 삼정 마을과 한국전력공사 사천지점 간에 농촌사랑 1단 1촌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사천지점은 마을과 협의하여 전기설비 점검, 수리, 농번기 일손 돕기 등 농촌 지원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 사천지점은 이번 자매결연으로 농촌과의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농촌사랑을 실천할 뜻을 밝혔다.

무더위 속 대학생 농촌 봉사활동 펼쳐



지난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한국해양대학교 학생들이 곤명면 4개마을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국해양대학교 학생 100여명은 14일부터 20일까지 곤명면에 머물면서 마을주변 풀베기, 과일 봉지 씌우기 등 농가의 일손을 도와주고 마을 환경을 가꾸어 주었다.

송림마을이장(강위관)은 "뜨거운 날씨에도 농촌을 찾아주어서 고맙다"면서 "경제논리와 금전의 잣대를 들이대는 현실에서 농촌과 농업의 참다운 가치를 체험하는 기회의 장이 될지 바라며, 즐거운 추억거리를 손에 한 아름 들고 집으로 돌아가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서 포 면 2008년 태풍대비 민방위재난방재 훈련 시행



지난 6월 26일 오후 14시 서포면 다평리 다백여촌체험마을에서는 2008년 태풍대비 시 단위 민방위재난방재훈련을 가졌다.

이날 훈련은 사천시 일원에서 수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서포면의 특성을 감안, 해안 주변 상황을 염두해 서포면에서 시나리오를 직접 구성해 실시되었으며, 훈련에는 시의원, 각 실과소장, 읍면동장, 각 읍면동 민방위 담당자 40여명과 훈련 참여인 및 참관인 150여명 등 약 200여명이 참여하여 민관이 하나가 되어 재난방재훈련에 최선을 다해 태풍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농-도 복합교류를 위한 자매결연도시 방문



지난 6월 27일 서포면장의 서포면사무소직원은 자매결연도시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을 방문해 우리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광역시의 선진 행정서비스를 체험했다.

특히 서포면의 한 직원은 "일반 큰 병원에서나 볼 수 있는 순번표에 의해 운영되는 민원 대기과, 우리 지역과는 달리 꾸준한 공채 선발로 대부분 직원이 20대 여성인 것이 인상 깊었다"며 이번 방문의 소감을 피력했다.방문의 마지막 코스로 대구의 명산인 팔공산 등반을 끝으로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동 서 동 동서동 주민자치학습센터 현판식



동서동주민자치학습위원회(위원장 정태권)는 지난 6월18일(목) 오전11시30분 주민자치학습위원 및 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동주민자치학습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주민자치학습센터 현판을 교체함으로써 주민자치학습센터가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판식 개최 후 참석 위원들간 간담회를 통해 주민자치학습센터 활성화 및 역할 등 향후 나아가길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선 구 동 선구동 주민자치특성화 프로그램 실속화 거듭

사천시 선구동주민자치학습위원회(위원장 이대수)는 지난 7월14일부터 이틀간 주민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카메라 사용법', 7월 24일에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내고장 바로알기 탐방'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해 주민들과 학생들로부터 실속



있는 교육이라는 찬사를 받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한 2개의 단기 프로그램 중 '디지털 카메라 사용법' 과목은 디지털카메라 보급 확대에 대부분의 가구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세부 사용방법을 모르는 이용자들을 위해 간단한 작동방법과 사진 잘 찍는 법, 사진 이미지 수정 등의 활용방법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태양유전 사진동호회(회장 백기봉)의 협조로 진행됐다.

또, 우리교장의 역사와 문화 주요시설 등을 탐방할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애郷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한 초등학교 '내고장 바로알기 탐방' 프로그램은 삼천포초등학교 재학생 44명이 참여해 사천시청, 시의회, 조영근총, 사남초전공원, 사천일반산업단지, 하수종말처리장, 사천향교, 사천녹차원, 제초·단종대실지 등 사천시의 산업과 문화시설물을 현장 설명과 함께 견학하는 코스로 내 고교장을 바로 아는데 좋은 학습이 되었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동 서 금 동 '바다사랑·바다가꾸기' 행사 개최



지난 7월 22일 삼천포제주특별자치도민회(회장 고규환)와 나잠부녀회(회장 고선미) 공동주관으로 해마다 실시하는?바다사랑 바다가꾸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사천해양경찰서, 해양수산과, 수협 지도과, 팔포어촌계, 다이버협회, 잠수기수협, 해병전우회, 팔포상가번영회를 비롯한 8개 단체가 합동으로 이날 행사에 참여해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수협농동공장에서 노산공원 조선포까지 각종 바다쓰레기와 일반 폐기물 그리고 선박에서 나온 각종 폐어구를 수거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삼천포제주특별자치도민회는 참여한 단체에게 콩국수와 우유, 빵 등 간식을 제공했으며, 바다환경의 소중함과 보존에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

벌 용 동 바르게살기 벌용위원회 매월 선생활동 펼쳐



바르게살기벌용위원회(위원장 김종진)는 매월 불우이웃돕기와 교통질서캠페인 등의 행사를 펼쳐나가며 참다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관내 3세대를 선정해 매월 둘째 수요일에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격려금을 전달하고 말뚝을 해드리며, 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는 지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따뜻한 이웃애를 실천하고 있다.

이 혜택을 받고 있는 한 세대는 "매달마다 잊지 않고 찾아와 주는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보답할 길이 없어 안타깝지만 하다. 이런 분들이 내 주위에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라며 고마움을 표실했다.우리 지역에서 참다운 봉사활동을 펼쳐나가는 단체로 주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새마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



지난 6월 24일 새마을지도자벌용동협의회·부녀회(회장 서영식,이영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 추○○에게 도배와 도색작업을 벌였다. 새마을 지도자들은 도배와 도색작업을, 부녀회원들은 가재도구 정리와 이불 빨래를 함께 하여 주위로부터 새마을 봉사단체로서의 참 면모를 보여 좋은 평을 받고 있다.

향 촌 동 향촌동 통장협의회 우리지역 테마관광 다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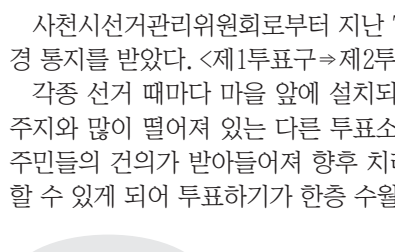


향촌동통장협의회(회장 이종상)는 지난 7월10일 우리지역 테마관광으로 단합대회 행사를 가졌다.

매년 타지역의 선진지 견학?체험 등으로 단합행사를 가졌지만 이번 행사는 고유가 등 지역경제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우리지역의 관광명소와 청정바다의 먹거리를 직접 체험해 보면서 사천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느껴보고 지역발전을 위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달일 짧은 일정으로 아쉬움도 많이 남았지만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부에 위치한 우리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정말 살기 좋은 고장에 살고 있구나"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향촌동 상향마을(1통) 투표구 변경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7월 8일 향촌동 제1통(상향마을)지역의 투표구 변경 통지를 받았다. <제1투표구=>제2투표구>

각종 선거 때마다 마을 앞에 설치되어 있는 투표장소(운산초등학교)를 두고 실제 거주지와 많이 떨어져 있는 다른 투표소로 투표하러 가야하는 불편함이 크다는 상향마을 주민들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향후 치러지는 선거 시에는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어 투표하기가 한층 수월해졌다.

남 양 동 남양아카데미, 남양인의 축제로 자리매김



남양아카데미 남양인의 축제로 자리매김 남양동주민자치학습위원회(위원장 정지철)는 지난 7월10일(목) 오후 2시 남양동에 소재한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민 25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출신인 경성대학교병원 최봉룡 교수를 초빙해 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강연은 남양동 구미마을에서 출생해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여 현재 경성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조교수 및 동 병원 홍보팀장을 맡고 있는 최봉룡 교수가 맡았다.

최봉룡 교수는 서구에서 현재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인구의 고령화와 식이의 서구화로 인하여 지난 20년동안 사망률이 약 4배 증가한 '허혈성심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의 진단과 치료'라는 주제로 강연해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성황을 이뤘다.

남양아카데미는 남양동주민자치학습위원회에서 2006년도부터 매년 출향인을 모시고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들의 교양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교양강좌로서 남양인의 축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사천시 산불방지 최우수기관 선정

경상남도 종합대책 평가서 최우수시 선정

사천시가 경남도에서 실시한 올해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실적평가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추기에 산불방지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산불방지종합상황실운영과 공무원 비상근무, 입산통제지역 구간지정 운영 주민홍보, 도로와 연결한 산

록번 풀베기 실시 등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종합대책 수립 결과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산불전문 진화대 확보 및 기동순찰 활동과 산불 발생시 초동 진화, 읍면동 산불명에 감시원 319명과 진화대 48개 대를 조직하여 산불 발생시 신속 정확한 진

고와 진화체계를 구축해 각종 지시사항 및 이행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산불진화 장비 5천5백점점 수시로 점검·정비하고 진화대원의 장비사용 능력을 배양해 유사시 신속 대응토록 했다.

또 임차헬기를 전진 배치하여 산불 초기 진화 및 사전 산불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영농교육 및 캠페인을 통한 주민계도와 산불조심

10만명 시민서명운동과 마을앰프, 차량가두방송을 실시해 홍보에 큰 점수를 얻었다.

한편 시는 오는 11월중에 최우수 기관표창과 시상금 3백만원을 전수 받을 영예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금년 가을과 내년 봄철에도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시가 되도록 총력을 경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천시 폭염특보에 따른 대응책 마련

사천시는 지난 7월9일 폭염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무더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최소화 하기 위해 폭염대비 합동추진 T/F팀을 구성하고 폭염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읍면동과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다.

최근 폭염으로 인하여 합천2명과 함양1명의 농민들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천시는 폭염에 따른 행동요령의 전단을 신속하게 제작 배포하고 읍면동 통리장과 반장들이 일선에서 홍보와 신속한 신고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폭염의 재해 취약계층을 돌보기 위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25명과 맞춤형 방문 보건팀 9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정동면 보건지소를 비롯한 16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직원들이 담당구역별로 매일 직접 순회 방문을 통해 건강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축사농가에서는 축사천정에 단열재를 부착하고 선풍기로 환기 하도록 사육장에 물 분무장치를 설치하여 열을 식히고 병해충을 방제하는 등 사전예방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사천농기센터 농작업 안전모델 육성

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는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 육성사업으로 정동면 대곡마을 주민이 농작업 시범마을로 지정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능력향상을 위한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육성하고 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 육성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전문가들에 의한 농작업 재해요인 분석과 건강상태 파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농작업 안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주도적인 참여 실천으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생활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금년 1차 연도에는 마을주민들의 농작업 안전관 건강에 대한 의식향상과 작업환경 및 방법, 안전관리상과 작업환경 및 방법, 안전관리를 도출하고, 2차 연도에는 개선방안 및 안전지침 실행 교육, 안전관리, 안전교육, 안전관리, 운동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2010년 3차 연도에는 안전실행 및 사업성과 평가와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정착 되도록 할 계획이다.

7월 22일부터 12월 초까지 총 34회 (주2회 화요일 오후1시30분, 금요일 오후2시) 2시간씩 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다.

화요일에는 농작업 피로회복을 위한 체조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올바른 작업자세가 되고, 서로 피로를 회복시켜주어 가족화목을 도모시킬 수 기회를 마련한다.

체조를 마치고 난 후에는 진주의료원 재활의학과 조진홍과장님의 정성어린 근골격계 질환 물리치료를 함께 받으므로 농사일로 많은 고생을 받고 있는 마을주민들과 노인들에게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금요일에는 생활체조를 할 계획이다.



2008년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실시

사천시는 밤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항공방제를 희망하는 농가 대상으로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2008년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를 8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사천읍 및 읍면에서 실시한다.

사천시는 이 기간 동안 항공방제로 인한 양봉농가 등 타산업에 피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통보 및 마을앰프방송 등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양봉농가는 피해예방을 위해 벌통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약제살포, 당밀 방봉금지 등 각별히 안전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정 밖 소식

병무청, 인터넷 민원신청 공인인증제 도입

입영일자·부대 선택시 본인 명의 도용 피해 예방

병무청에서는 민원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본인확인 절차 또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주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을 확인하여 왔으나, 최근 제 3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본인도 모르게 입영일자를 선택 또는 변경하는 등 피해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안전한 본

인확인방법인 공인인증제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인터넷 뱅킹 등 “공인인증서” 사용이 날로 증가하고, 2007년부터 징병검사 수검자 진원에 대하여 “공인인증서”가 탑재된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하는 등 공인인증의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판단되어,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전자민

원업무에 대하여 공인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2008. 8. 1.일부터이며, 병무청 인터넷 민원 중 6개 민원에 대해서 시행됩니다.(?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재학생입영원?재학생입영원 취소원?재학생입영원?병역의무 기일연기원?입영기일연기 포기신청)

자료제공 경남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055-279-9223

사천네트워크 +one 운동 추진

사천네트워크에서는 +one(플러스 원) 운동으로 ‘+one 생신상’을 지역의 식당과 제과점을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독거어르신이나 외롭게 지내시는 생일날 마저도 그냥 지나가거나 쓸쓸히 혼자 식사를 하시는 것이 안타까워 독거어르신을 위한 +one 생신상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첫 번째로 지난 15일(화)과 17일(목) 오후 1시 시골장터식당, 유정식당, 판문점식당에서 생신을 맞이 한 독거어르신과 친구분이 함께 즐거운 점심식사를 하였다.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김명규 베이커리, 이화당 베이커리, 푸레쥬르 사주리점에서 축하케익을 제공하여 더욱 더 즐거운 생신이 되었다.

사천네트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플러스원(+one) 식당은 “한 달에 한 번만, 생신을 맞이 한 어르신께 따뜻한 밥 한끼 대접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플러스원(+one) 제과점은 “한 달에 한 번만, 생신을 맞이 한 어르신께 맛있는 케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식당과 제과점이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이 지역을 살리는 데서 힘을 모으는 것이다.



현재 플러스원 생신상에 참여한 식당은 시골장터, 유정식당, 판문점식당, 다선, 서울 설렁탕, 영광다슬기식당이고, 생일에 맞춰 케익을 후원해 주는 제과점은 김명규 베이커리, 이화당 베이커리, 푸레쥬르 사주리점, 해피스토리, 빠리 제과점이다.

읍중심의 시범운영이 끝나고 나면 면·동지역으로 점차 확대하여 나갈 것이라고 한다.

새마을문고 사천지부 피서지이동문고 개소

새마을문고 사천지부(지부장 신재균)는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2일까지 47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남일대 해수욕장에서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를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책읽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이동문고를 개소했다.

이동문고 운영은 휴가철 건전한 피서지 문화 정착에 일조하고 있으며, 또한 언제 어디서나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국민 책읽기 운동 전개와 가을 독서경진대회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1인 1일 2권을 2일간 대여하고 있으며, 피서객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휴가철에 읽을만한 책을 선정했고, 피서지내 자체 홍보



방송은 물론 순회를 하면서 이동문고를 홍보하고 있다.

새마을문고 사천지부에서는 새마을문고회원 3명이 1일 교대근무를 하면서 이동도서관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래 방문객들에게 안내도 하고 있으며, 시민과 피서객들이 많이 이용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청렴공직사회 건설 다함께 참여 합시다

청렴은 바로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가리는 불확실성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으며, 내부의 부패야말로 희망을 덮는 먹구름이며 암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정착시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공직자들에게 고도의 윤리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본 및 무역의 자유화, 정보화와 세계화로 세계경제의 네트워크화가 확산되면서 반부패 이슈는 국내차원을 넘어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렴도가 중시되고 있습니다.

정부 및 국가 신뢰의 상실은 곧 국가발전 및 국가경쟁력의 추락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 확보는 21세기 국가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자 핵심적 자본으로 국가신뢰 확보의 핵심에 바로 국가 청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가 국가경쟁력이나 경제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 수준은 중요한 평가 잣대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도 우리나라 청렴도는 세계 180개국 중에서 43위의 평가를 받았으며, 우리시는 경남도내에서 중위권에 들어 있지만 부진하다는 것이 자체진단평가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시에서 행하는 인허가 업무, 관공사 등 부패취약 분야에 감시 체계를 강화하여 부당사항을 요구하거나 의혹의 정보가 수집되면 사천시청 기획감사담당관실, 경남도 감사관실, 수사기관 등으로 용감한 신고를 해주시면 청렴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민원인께서 신속한 업무처리, 정보수집 등 업무편의, 명절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저질러지는 금품 향응 제공이 근절되지 않으면 선진 사천시 건설은 요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의 최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부패행위 근절에 각별한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사천시 지역 지도자 워크숍 개최

평생학습·주민자치학습센터 활성화 방안 논의

사천시는 지난 7월14일 월요일 오후2시 삼천포해상관광호텔 구룡관에서 “평생학습과 주민자치학습센터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관내 지역 지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 읍면동장과 주민자치학습위원, 이통장협의회장 등 지역 리더들이 참석해 지난 1월 25일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학습센터로 전환되어 지역사회 학습공동체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최근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평생학습이 왜 필요한 것이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전략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민자치학습센터가 평생학습과 연계하여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권위자이신 홍석희(부천시 평생학습센터 소장) 강사를 특별 초빙해 평생학습을 통한 주민자치학습센터의 활성화 방안과 지역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해 4시간 동안 강의가 진행되어 워크숍에 참석한 지역 지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자치학습센터에서의 평생교육은 주민의 지역역량을 강화하는 시민의식전

환 위주의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 지역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천시의 주민자치학습센터가 지역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 주의

수시기관·금융기관·카드사 등을 사칭, 신용카드 연체·명의도용, 시기시건 연루, 각종 현금금 지급을 빙자해서 예금을 모호해 준다며 현금지급기 조작을 유도, 예금을 계좌이체 받는 전화금융사기 주의

■최근 전화금융사기 수법

- 카드사·은행직원 등을 사칭, 카드연체·신용카드 명의 도용을 빙자하여 경찰·금융원에 신고해준다고 한 후 경찰관·금융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다시 전화를 해서 현금지급기 조작을 유도, 예금을 계좌이체 받아 편취
- 전화요금 연체 또는 전화 명의 도용을 빙자, 현금지급기 조작을 유도
- 교직원, 국제정·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등을 사칭하여 과납한 등록금, 세금, 보험금 등 현금금을 돌려준다고 현금지급기 조작을 유도
- 법원,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시기시건에 계좌가 연루되었다며 예금 보호 명목으로 현금지급기 조작을 유도
- 가족을 납치했다고 협박하여 계좌이체를 지시

■대처방법

- 전화를 이용, 계좌번호·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지급기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기전화입니다.
- ※어떠한 기관도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더우기 현금지급기 조작을 통해 현금금을 지급하거나 예금 보호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만약의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원, 은행에 연락하여 개인정보도출차사고 예방시스템에 등록하세요
- ※한국정보보호진흥원:국번없이 1336
-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은행 콜센터나 지점에 연락해서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한 후 경찰에 신고하세요

사천경찰서

〈우주항공소년 도록이의 항공 이야기-55〉



비행운

(비행기가 날아갈 때 생기는 구름)

비행기가 높은 하늘을 날아간 뒤에 길게 꼬리를 끌며 나타나는 흰색 구름이 바로 비행운(condensation trail, contrail) 또는 꼬리구름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구름이다. 즉 맑고 차갑고 습한 공기 중을 비행하는 비행기의 뒤쪽에 종종 보이는 구름을 말한다.

비행기가 대기 속을 지나가면서 배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가 주위의 차가운 대기에 의해 갑자기 얼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생긴 얼음 주위의 수증기가 모이면서 비행기는 구름이 만들어진다. 또한 상공의 희박한 공기 중을 비행기가 날 때 공기의 부피가 급히 팽창해 날개의 끝에서 공기의 소용돌이가 생겨 비행운이 생기기도 한다. 즉

비행운이 생기는 최상의 조건은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은 날로서 종종 맑은 날에 잘 보이게 된다. 비행운은 주로 작은 물방울이 쉽게 증발하지 않고 얼어 버릴 만큼의 높은 고도에서 발생하는데, 보통 대기온도가 영하 38도 이하에 약 8,000미터 이상의 고도에서 기본적으로 시속 300km 이상의 비행 시에 주로 발생한다.

비행운은 엔진 후방뿐 아니라 날개 후방에서도 발생한다.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속의 수증기는 외부의 찬 공기에 의해 갑자기 냉각되면서 얼음 입자를 형성한다. 이 입자를 핵으로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순간적으로 엔진 후방 부위에 흰색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항공기에 장착된 엔진이 2개인 항공기에서는 두 줄의 비행운이, 엔진이 4개 장착된 항공기에서는 네 줄의 비행운이 나타나게 된다. 또 발하지 않고 얼어 버릴 만큼의 높은 고도에서 발생할 경우엔 높은 공기 중을 비행할 경우에는 공기역학적으로 감압 현상이 일어나 수증기의 응결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압력 변화가 심한 양 날개의 끝 쪽 후방에 비행운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날개 후방의 비행운은 곧바로 증발하여 사라져 버린다.

비행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비행 중 엔진 후방 주위의 공기에 충분한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제트 엔진을 장착하고 고 고도를 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교적 낮게 날

아가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비행운을 만들기 힘들며, 주로 높은 고도를 운항하는 항공기와 정찰용 군용기의 경우에서 주로 볼 수 있다. 비행운을 볼 수 있는 시간은 고도 이외에 대기의 상태에 따라라도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비행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흩어지거나 증발한다. 만약 비행운 내부의 공기가 낮은 상대 습도를 가지고 있다면 얼음 알갱이는 쉽게 증발하여 비행운은 사라져 버린다. 그러나 높은 상대 습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강한 바람이 불면 쉽게 수평면 사이로 흩어져 버릴 수 있다. 비행운 내부의 공기가 충분한 상대 습도를 가지고 있고 가벼운 바람이 불 경우에 비행운은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한다. 항공기 특수 곡예비행 시에 볼 수 있는 항공기 후방의 하얀 연기는 비행운이 아니고, 항공기 배면에 장착한 연막 장치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공적인 하얀 연기이다.

긴 장마가 지나고 푸른 사천 하늘을 하얗게 수놓을 멋진 항공기들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김형래·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삶의 길잡이 명심보감

고백(告白)

原文:景行錄元結怨於人謂之種禍捨善不爲謂之自具

경행록에 이르기를 「사람에게 원한을 맺는 것은 이를 일러 화를 삼는 것과 같다고 선(善)을 버려두고 하지 않는 것은 이를 일러 자기를 해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양심의 가책에는 필연적인 고백이 따른다. 고백이란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다. 천주교회에서는 영세를 받은 신자가 범한 죄를 뉘우치고 천주님에게 직접 또는 사제에게 고백하여 용서를 받는 고해성사가 있다.

용기 있는 고백은 활책의 칼날을 무디게 하고, 모욕의 총구(銃口)를 비키게 한다고 했다. 마음에 오점이 남는 것보다 얼굴에 수치스러움이 떠오르는 쪽이 낫다. 용기의 다음가는 훌륭한 일은 자신의 비겁함

을 고백하는 일이다. 무거운 짐을 안았던 가슴은 그것을 고백하고나면 가벼워진다. 가장 현명한 것은 자기를 자기의 고백하는 상대로 삼는 일이다. 과실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은 그것이 무죄가 되는 하나의 단계이다. 허위는 진실과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늘 허위끼리 싸우게 된다. 어떠한 허위도 그것 때문에 또다시 다른 허위로 날조하는 일없이는 주장 할 수 없다. 모든 악덕 중에서 허위와 불성실 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받는 것만큼 그 사람에게 치욕감을 주는 것은 없다. 거미나 파리는 본능만으로 살아가지만 사람은 본능 이외의 지성으로 살아가는 동물이다. 본능은 육체의 지혜라고 한다면, 지성은 정신의 지혜이다.

동물들은 본능인 육체의 지혜로 살아가므로 거짓이 없다. 그러므로 허위와 거짓이 있을 수 없다. 자연 그대로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이라는 정신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위가 많다 사람만이 거짓말을 할 줄 아는 동물이다. 그는 남이 속이는 동시에 자기 스스로를 속인다. 인간의 허위는 두 가지의 옷을 입고 다닌다. 하나는 위선(僞善)이고, 하나는 위악(僞惡)이다. 백문서(白文書)의 헛 문서(文書)란 속류 같은 것을 말한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허위를 위해서 지껄이고 싶어서, 남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비밀을 교환하고 싶어서이다. 인간이 갖는 최고의 순간은 그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그의 생애의 모든 죄악을 고백 할 때인 것이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죽기 전에

참회를 해야 한다. 범죄에 대해서 회오하지 않은 인간은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 우리들은 늘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즉 내 양심만 깨끗하다면 아무것도 나를 다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내가 경술했거나 또는 무엇인가 자기 혼자만이 욕심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원수가 생긴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내 양심이다. 양심이 약하면 내 인간도 약해진다. 많은 양심을 보충함으로써 그 인성을 가장 강하게 살아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너무나 사람들이 생각지 않고 있다. 양심의 가책에는 필연적인 고백이 따른다.

음회세위(飲洗罪)란 말이 있다. 즉 재를 마시고 창자 속의 오락물(汚濁物)을 씻어 버린다는 뜻으로 악한 마음을 고쳐서 선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이다./金炯수·사천을

붉은열정...김치찌개를 먹으며

안주거리가 고민될 때 살비집이 좋은 해결책이듯, 딱히 점심 메뉴가 생각나지 않을 때 김치찌개는 기름의 단비 격이다. 굳이 따지자면 된장찌개와 쌍벽을 이루지만 된장찌개가 가질 수 없는 매력을 김치찌개는 가지고 있다. 쫄득한 돼지고기를 찜과 함께 먹을 수 있으니 이를테면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격이라고나 할까. 이것은 유달리 삼천포의 그것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어서 이채롭다.

김치찌개로 유명한 음식점은 점심시간이면 인산인해다. 줄을 서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딱히 치장이 없는 수수한 식당 안에는 벌써 절반은 손님들로 차 있다. 따로 주문하지 않아도 현지에서 바로 차려지는 게 김치찌개의 또 다른 편리함이다. 이는 한 가지 메뉴만을 고집하는 탓이다.

흰 쌀밥이 공기가득 수북하고 싱싱한 상추에 된장과 마늘 그리고 새우젓까지 차려지면 마지막으 큼직한 냄비에 얼큰한 김치찌개가 한상 퍼진다. 정렬적인 색깔이 먼저 입맛을 제압하고 한 손가락 떠놓고 나면 그 얼큰함에 세포들은 녹아든다. 알싸하게 목구멍을 헤치는 그 맛은 농익은 김치와 구수하게 짜낸 돼지고기의 육즙이 어우러져 빛이난 천상의 작품이다.

그뿐이라 구수하게 삶아진 돼지고기를 상추에 싸서 된장과 새우젓으로 둘러먹는 맛도 김치찌개를 능가한다. 굵지 않아 느끼하거나 눅눅하지 않으므로 그 담백함은 연방 상추 추가를 외치게 한다. 이런 것을 알 먹고 평 먹는다고 하는 것 일

게다. 한바탕 땀방울이 요동친 몸과 얼얼해진 입속엔 회심의 미소가 가득하다. 주인공의 정사 인심도 매스키 않았다. 그 살가움도 더해진다. 매일은 아니어도 시나브로 이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지는 것은 다 이런 연유다.

김치찌개는 김치 맛이 오체다. 적당히 여물되 신맛이 과하지 않아야 하고 국물 맛의 조화를 위해 양념도 싱싱해야 한다. 무엇보다 돼지고기를 적당히 넣어야 진국이 된다. 허나 음식의 본가는 손맛이고 정성이다. 요즘같이 외산물이 범람하는 세상에 우리먹을거리가 넘쳐난 시대를 받아서야 제대로 된 우리 맛이 나올 수 없다. 우리 산물로 우리 어머니 같은 손맛으로 빚어야 우리 몸에 맞는 진짜 김치찌개다.

김치찌개는 서민음식의 대명사다.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허기진 하루를 든든하게 지명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고향 같은 살가움도 느낄 수 있는 먹을거리다. 김치 없는 못사는 우리네 정서 속에 오래오래 어머니 같은 존재로 남는게 김치찌개다.

고물가속에 김치찌개도 값이 올랐다. 그래도 서민들의 입맛을 따돌릴 수 없다. 무얼 먹을까 고민되지 않는 주저 없이 김치찌개를 먹자. 덤으로 졸깃한 돼지고기 찜도 즐길 수 있다. 귀족한 결들이면 하루 시름도 김치찌개의 붉은 정열처럼 활활 생동할 것이다. 일일한 입안을 감추 한잔으로 달래고 나오니 세상이 다시 내 것 같다.

/이영호 · 향촌동

산사(山寺)의 밤 풍경

목탁소리
독경소리
빛은 저 오랜 산사
달거랑 달거랑
간간이 들려오는
청아 하고 그윽한
청동 빛 풍경소리

시림도록 보안
고운 달빛 드리운 채
산사의 트락 가득
군락으로 만개한
히얀 저 구절초 꽃들은
이승의 번뇌를 다 깨탈한
순박하고 어진
영령들의 고운 얼굴들인가?

산사의 트락 위로
한줄기 바람이 지나가면
숲에서 들려오는
바람과 마른 잎들의
오랜 다름 소리

산사의 트락 위로
또 한줄기 바람이 지나가면
어린 실타래 같이
복잡한 이 세상일들일랑
다 실어 보내리.

/유동원 · 삼천포제일중학교

매미

파란을 풀어야매 울로 높은 긴긴 마루
가려서 키워놓고 동실 떠가는 오름차순에
튀어져 그늘진 오차를 뽐내내는 기고다

누가 처음 내민 화음 질려와 닦게 되나
조목을 곁에 두고 할 줄 거리는 그 후에 앉아
잊어 온 문자를 맞추며 외고 있는 종일까?

후드득 떨어지는 날랜 곤경()있을 물고
사색맨은 바램 살려 받들거리는 단선 무늬
여백 맨 줄기로 돌아와 날을 세운 표본아

자라는 세속 향해 절절히 비준 음성
품어 온 실속 딛고 같은 모습 마주 겹쳐
산 아래 두드리는 감각 눈발 스택 머문다

/변근철 · 용현면 선진리

숲의 꿀벌전

평균수명 여든 살 시대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다지고 정신을 맑게 하려고 산행을 한다. 산행은 적은 비용으로 큰 건강증진 효과를 올리기엔 산행인구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봄이나 가을철이 되면 온 산에 산행객이 붓음을 이룬다. 가족이나 아는 사람과 삼삼오오 짝을 이뤄 산을 오르내리며 심신을 다지고 화합을 이루는 건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런데 산행을 하면서 일부 동아리 회원들은 소속한 동아리의 다른 회원이 길을 잘 찾아가게끔 산행코스를 알려주는 표지물을 남겨놓는 등 애를 태우며 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그 표지물을 보고 찾아가면서 나중에 목표지점에서 만나 모여 단합을 이루는 건 나무랄 데 없는 일이다. 그러나 표지물을 설치할 때의 시간을 나눈다.

산악 동아리 회원들이 표지물을 이용해 길을 찾고 회원 서로간의 화합과 단합을 이루는 건 나무랄 데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 표지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다면 나중에 내려올 적

에는 수거하여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작고 가벼운 표지물이라고 해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소한 표지물이라도 산 속의 새나 벌레에게는 방해가 될 수 있고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좋지 않다.

표지물은 거의가 색깔이 화려한 비닐이나 형광으로 돼 있어 오랜 삼오오 짝을 이뤄 산을 오르내리며 심신을 다지고 화합을 이루는 건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러나 표지물을 설치할 때의 시간을 나눈다.

따라서 산행동아리 회원끼리 혹은 아는 사람끼리 서로 약속하는 등산코스를 정할 적에 코스를 알리는 표지물을 매달았으면 반드시 내려올 때에나 마지막에 오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산을 즐겼으면 흔적을 깨끗이 제거하여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산행안내 표지물을 벌이 제거하는 번거로움이 싫으면 친환경 표지물을 이용하면 된다. 한지가 그 대

안이다. 한지는 나무무로 만들어 비에 젖으면 그대로 떨어져 썩어 나무의 거름이 될 수 있다. 질기고 나무에 매달기도 쉽다. 비닐이나 필름, 형광으로 만든 안내표지는 사람이 일부러 제거하지 않으면 오래 매달려 있어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 역행한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산자수명 한 금수강산이다. 이렇게 훌륭한 낙원 같은 금수강산에서 사는 것은 축복이고 행운이다. 이런 행운과 은총을 오랜 기간 자자손손 누리려면 자연을 조금이라도 훼손하고 동식물에 위해를 끼치는 일은 삼가야 한다. 그레야 자연도 충분한 보답을 해 준다.

자연을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면 표지물을 없애면 하고 앞으로는 철저히 제거하거나 자연친화적인 한지로 만든 표지물을 매달았으면 한다. 우리나라의 울창한 숲이 잘 보전되어 국민의 두터운 사랑을 받고 나라의 보배로 길이길이 남았으면 한다. 자연은 우리의 일이요 목숨이고 그것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요 사명이라는 평범한 말의 뜻을 되새길 때다. /이육출 · 부산시 서하구

8.15 광복의 달 맛이 나라사랑 무궁화사랑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태향으로 길이 보전하세” 무궁화는 이처럼 애국가와 대중가요에 나오듯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화로서 맨 처음 나라꽃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구한말 때라고 알려져 있으며 또한 문치호선생이 애국가를 지으면서 무궁화 삼천리라는 구절을 넣은 것은 같은 애국지사이면서도 그와 친숙했던 남궁억 선생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 무궁화는 이처럼 유구한 역사 속에 일제 침략 36년간의 압박과 통치 속에서 우리 선조들은 태극기와 함께 삶과 희망 민족의 애환을 달래며 일제의 총칼에 맞서 무궁화를 심었다고 한다. 우리의 정신적 지주였던 무궁화가 일제 침략자들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학교나 관공서 공원에 심어진 것을 무작위로 뽑혀 불태워

지고 무궁화 묘목을 배급하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가 심한 고문을 당하거나 일제의 총칼에 맞아 희생되었다고 한다. 당시 무궁화 배급의 선두자인 남궁억 선생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무궁화는 화려하면서도 끈기와 인내로서 우리민족성에 잘 비유된 다하여 민족의 꽃이요 정신적 지주였던 것으로 3.1운동 때는 장하도다 아름답다 무궁화 별판이라는 노래를 불러 가면서 일본 경찰들과 총칼에 맞서 싸워왔던 것이다. 무궁화는 조여름부터 가을까지 연속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오랫동안 피고 인내력을 가진 꽃이라 하여 꽃 중의 왕이라고도 전해지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무궁화를 일컬어 진땀물과 벌레들이 많이 붙어 아주 불품없는 꽃으로 여겨 천대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

나 이는 아주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 본래 품종이 우수한 무궁화는 벌레가 달라붙지 않았는데 당시 일제와 친일파들이 염색체를 조작하고 일부로 나쁜 품종을 심어 민족의 꽃인 국화를 말살하려 했던 것이다.

이제 얼마 후면 건국일과 광복의 달을 맞이하게 된다. 온 국민이 벅찬 감회에 한마음이 되어 나라사랑과 함께 우리선조들의 자주독립정신을 되새기며 국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5천만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을 앞당겨 무궁화 꽃이 가득 피어나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축복해 줄 것이다.

그런점에서 해마다 나라사랑 무궁화사랑 큰 나무 배지달기 운동회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지역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권영수 · 마산 참사랑봉사회

정속주행이 교통안전 지름길

고속국도를 달리다 보면 거의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초상 가운데 빨리 못가 죽은 귀신이라도 있는지 과속을 일삼는다. 거의 대부분의 고속국도가 제한속도 시속 1백~1백 10킬로미터이다. 그런데 규정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를 보기가 어렵다. 도로가 좀 한산하다 싶으면 규정속도는 남의 일이라는 듯이 빠르게 달린다.

그렇게 과속하여 일찍 목적지에 도착하여 무얼 하겠다고 불안하게 목숨 걸고 달리는 지 모르겠다. 속도가 빠르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몸은 더욱 긴장하게 된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인성이 크게 무뎠다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가 교통사고왕국의 오명을 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과속이다. 과속하면 자연히 차간거리

를 안전하게 지키기 어렵고 돌발상황에 대처하기도 어렵다. 고속국도에서 제 속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받는 느낌이다. 곳곳에 속도위반 단속용 무인카메라가 있어도 그 밑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일만 가서 다시 과속을 한다.

교통사고는 순간에 일어난다. 수십 분 먼저 가려다가 수십 년 먼저 황천길로 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교통사고는 자신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안겨준다. 인명과 재산의 손실도 크고 사고 처리에 따른 국가 행정에 도착한다고 인성이 크게 무뎠다는 것도 아니다.

각 도로의 속도 기준은 안전과 편의의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책정했으므로 그 도로의 속도 기준에 맞춰 달리면 안전하고 쾌적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자

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무모한 속도로 목숨 걸지 말고 정속주행을 해서 안전한 교통문화를 창달해야 하겠다. 과속하는 버릇은 잠시는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언젠가는 큰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여름휴가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계곡으로 바다로 휴가를 떠날 것이다. 높은 기름값에 경제불황이 겹쳐 살아가기가 버겁다. 과속은 연료소모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정속주행과 경제운전으로 연료비를 아끼고 사고를 방지해 행복한 휴가를 즐기고 인생을 유유자적하는 자세를 지닐 때이다. 운전에서 만은 시간을 지나치게 아끼겠다는 마음으로 과속하지 말고 좀 느긋한 마음으로 안전운전에 심혈을 기울이자. 운전대를 잡은 양손에 가족의 행복과 사회의 안녕과 나라의 태평성대가 달려있음을 깨닫는 순간부터 안전은 이미 달성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백정도 · 부산시 서하구

김수영 사천시장 에너지절약 솔선수범

사천시 상반기 주요업무보고회 개최



김수영 시장이 초유가 에너지절감대책인 공공기관 승용출차제 시행으로 7시40분 출발인 직원 출퇴근 버스를 이용해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하여 실천하고 있다.

초유가시대에 범국가적 에너지절감 분위기에 조성해 사천시장부터 솔선수범 하고 있다.

정부의 초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절감 대책이 시행되는 지난 7월 15일부터 사천시는 승용출차제를 시행하면서 직원 출퇴근 버스를 2회에서 4회로 증차시키고 김수영 사천시장부터 솔선수범하여 출근버스를 이용하여 8시에 출근했다.

평소에는 넥타이 차림에 승용차로 출근하는 사천시장은 고유가에 따른 저소비 고효율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자 넥타이를 풀고 시정버스로 직원들과 함께 출근하는 모습은 에너지절약을 실천하자는 의도가 확실하게 보였다.

또한 사천시는 야간 경관조명 소등과 가로등 격등제 실시는 물론 청내 여름철 냉방온도를 28℃이상 유지하고 엘리베이터 이용도 격등으로 운영이 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7~8월 여름철 기간 전년대비 5%이상 절감하면 절감분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연말 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사랑(+)을 분청과 전 읍면동까지 확대 신청하여 정부의 지원을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하고자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실천방점을 하달 시행하고 있다.

특히 15일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 승용차 출차제는 경차, 승합차, 화물차, 장애인승용차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승용차에 적용이 되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사천시청 직원들은 직원 동료간에 카풀제를 실시함으로써 교통비 절감은 물론 평소 모르고 지냈던 동료애를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청내 실내온도로 인한 더위와 엘리베이터 격등 운영, 실내 격등제 실시, 승용차 출차제 등으로 근무여건이 다소 불편한 점이 많으나 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에너지절약에 동참해야 시민들이 동참한다는 일념으로 불평 없이 퇴근시에 같이 갈 동료들을 찾는 것으로 하루일을 마무리하고 있다.



김수영 시장 주재로 지난 7월 9일 3층 중회의실에서 상반기 주요업무보고회가 개최됐다.

사천시는 지난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3층 중회의실에서 김수영 시장 주재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상반기 주요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장과 실과 사업소장, 담당주사가 참석한 가운데 9일은 담당관과 사업소,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10일에는 총무국,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하반기 추진계획, 2008년도 역점시책 추진상황 등을 문제점과 대책 위주로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진행했다.

회관 시의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하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해 하반기 업무추진방향과 시정수행을 위해 국도비 등 재원확보방안을 모색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효율적 시정운영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정을 펼쳐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2008 삼천포대교 야경축제 개최

무더위! 영화로 날려버리자

무지개 언덕, 빛의 터널과 함께하는 한여름 밤의 축제

황금빛 실안노을과 삼천포대교의 화려한 야경속에 올여름 무더위를 잊게 할 '2008 삼천포대교 야경축제'가 오는 8월 9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다.

한국예총 사천시지부가 주최하는 야경축제는 매일 밤 8시부터 11시까지 모형비행기 축하비행, 불꽃놀이 등 화려한 야경이벤트와 더불어 신명나는 무대공연이 펼쳐진다.

9일은 '만남&추억'이라는 제목으로 SBS 놀라운대회 스타킹에 출연해 공중부양 마술을 선보였던 '제이 매직'의 마술공연과 마임공연을 비롯해 '향수'의 이동원, 타임머신 등 유명가수들의 무대공연으로 7080 세대를 위한 특별한 추억공간이 마련된다.

19일 '더위사냥'에서는 째즈, 비보이 등 흥겨운 댄스공연과 마임, 마술공연, 파워풀한 가창력을 자랑하는 여성 록커 '서문탁'의 공연으로 무더위를 식혀줄 예정이다.

특히 매일 밤 화려한 불꽃놀이와 모형비행기를 이용한 야경이벤트로 환상의 세계가 펼쳐지며, 아름다운 사천을 노래한 "시화전"이 열려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삼천포대교 야경축제에서는 전국 9대 일몰지인 실안 바닷가 전경과 창선·삼천포대교의 환상적인 야경을 배경으로 함으로써 공연축제와 아이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지난 2007삼천포대교 야경축제 개막식 장면.

문화회관 야외광장에서 무료 영화상영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무료 영화상영을 실시한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중에 6회에 걸쳐 상영되는 이번 "무더위! 영화로 날려버리자"는 대형스크린과 웅장한 사운드로 시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한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이다.

영화제목	상영일	시간	관람등급	비고
박물관이 살아있다	8.12(화)	저녁 8시	전체관람	외국
만남의 광장	8.13(수)	저녁 8시	12세이상	한국
판타스틱4	8.14(목)	저녁 8시	12세이상	외국
식객	8.19(화)	저녁 8시	12세이상	한국
아이언맨	8.20(수)	저녁 8시	12세이상	외국
다이하드4	8.21(목)	저녁 8시	12세이상	외국

- 상영내용 : 8월 중 6회 상영
 - 입 장 료 : 무료
 - 주 최 : 사천시
 - 주 관 : 대원영화사
- ** 주최 및 주관측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선 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상영 합니다.

도내 유일 돔 하우스식 해상황토펜션 설치

전어마을로도 유명한 사천시 남양동 대포어촌계에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할 어촌체험관광마을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돔 하우스식 해상황토펜션을 설치해 지난 7월 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어촌체험관광마을은 2007년도 국토해양부에서 지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돔형 하우스 6개동과 어정관 리선 1척, 세척장 및 종합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금년 6월말에 준공하여 그동안 시범 관리해 오다가 이번에 개장하게 되었다.

대포어촌계 해상황토펜션(일명 돔하우스)은 실내 황토를 도포해 해상에서 황토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23~30㎡정도의 규모로 설치되어 있으며, 숙식을 하면서 선상 전어잡이와 낚시를 겸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되어 있다.

이용료는 1박 기준으로 30㎡는 5



남양동 대포어촌계에서 바다에 설치된 돔 하우스식 해상황토펜션.

인기준 15만원, 23㎡는 4인기준 12만원이며, 최대 수용인원은 10명과 7명까지로 초과인원에 대해 1인 1만원을 부담하게 되며,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의 비수기는 할인하고 있다.

한편 시는 돔 하우스식 해상황토펜션이 삼천포대교와 사천대교등 만원이며, 최대 수용인원은 10명과 도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과 여가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어업인의 실질적인 어업의 소득을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분	행 사 내 용	시 간 계 획		주관 및 출연
		시 간	소 요	
추억 & 만남...	오프닝	20:31~20:32	2'	모형비행기 축하비행
	재밌는이야기	20:33~20:37	5'	문인협회
	색소폰연주	20:38~20:43	6'	연예협회
	마임공연	20:44~21:03	20'	이정훈
	가수공연	21:04~21:10	7'	김진호
	국악합동공연	21:11~21:23	13'	국악협회
	불꽃놀이	21:24~21:28	5'	
	마술공연	21:29~21:48	20'	제이매직
	진도박춤	21:49~21:54	6'	무용협회
	밴드공연	21:55~22:09	15'	그림 창공
	초청가수	22:10~22:29	25'	이동원
	전통무용	22:30~22:35	6'	무용협회
	7080밴드	22:36~22:58	23'	그림 타임머신
	클로징	22:59~23:00	2'	사회자
	더위 사냥!	오프닝	20:31~20:32	2'
시낭송		20:33~20:35	3'	문인협회
비보이		20:36~20:50	15'	RB3쿠루
초청가수		20:51~21:00	10'	김진호
마임		21:01~21:25	25'	이정훈
트럼펫		21:26~21:32	7'	음악협회
불꽃놀이		21:33~21:37	5'	
마술		21:38~21:52	25'	제이 매직
초청가수		21:52~22:20	28'	서문탁
째즈댄스		22:21~22:32	12'	이모션
밴드공연	22:32~22:57	26'	여섯줄년두리	
클로징	22:58~23:00	2'	한승환	

평생학습칼럼



박용한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기업과 평생학습 (하)

없다.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계속적으로 개선을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대인은 모순되는 두 가지 시대를 살고 있다. 한편으로 많은 조직이 일을 단순화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한의 교육조차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을 단순화하고 있다. 이 실태는 슈퍼마켓에서 볼 수 있다. 기계 상품에 붙어있는 바코드를 읽어 자동적으로 가격을 입력하고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 단순화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기계는 영리해지고 있다. 낮은 기술조차 필요하지 않은 일의 수가 감소하는 것과는 반대로 다른 한편으로 고도의 교육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학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종래의 학습모형이라고 하면, 정교교육제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이 학습모형의 하나가 되고 있다. 노동자는 언제,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를 자기 생활의 새로운 과제로 생각하게 되었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조직은 육아와 노인보호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정생활의 변화, 노동과 레저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 평생학습의 요구, 퇴직정책에 의한 경제비용의 상승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흐름이 개인과 사회를 새로운 생활패턴으로 향하게 하고 있다. 대부분의 직무에서 평생학습이 필요하게 되고 있다. 효율적으로 성과를 올리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정보가 만들어지는 것과 거의 동시에 진부해지고 있다. 지적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학과 과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의 평면적인 참가형 조직에서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높은 수준의 독해력·문장력·변론 능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안 기술을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동료 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협력하는 것이 불가피한 기술이 되고 있고,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중요하게 되고 있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과거의 권위-종속관계처럼 단순히 관리할 수 없다. 따라서 많은 조직에서 팀을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중점 원에게 가르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4. 무용지식(Obsoledge)의 시대와 끊임없는 공부

앨빈 토플러는 이런 시대의 특징을 '무용지식(Obsoledge)의 함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용지식은 물론 '무용한(obsolete)과 지식(knowledge)'을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지식을 한번 배우면 평생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농부나 공장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모두 그런 시대를 살았고, 오히려 느릿느릿 변화함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앨빈 토플러는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지식이 무용지식으로 바뀌는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지식을 갱신하지 않는 한 직장 생활을 통해 쌓은 경력의 가치도 줄어들고 마는 세상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혹시 이런 '무용지식(Obsoledge)에 근거해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평생학습시대는 개인의 잠재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이 그 구성원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한 시대를 지배했던 교육주의가 이제는 학습주의로 이념적 탈바꿈을 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기업역시 구시대적 교육을 탈피하고 종업원의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조직의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

변화의 시대에 생존을 원하는 사람이려면 배움을 생활의 한 부분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이제껏 자신이 어떤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침 새로운 아침을 시작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변화의 시대에 적임자로 남을 수 있다. 개인의 생산성 향상문제를 오랫동안 다루어 온 캔드릭 씨는 "성공을 손에 넣은 사람은 평생 배우는 일을 계속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어차피 급속히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변화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끊임없는 공부와 지식 업데이트는 지식정보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즐거우면서도 고단한 '숙명'인 듯합니다.